

그·날·의·도·로

1973년 12월 17일

한라산을 가로지른 50년 전의 발자취 제주 제2횡단도로 개통 이야기



1973년 12월 17일, 한라산의 서쪽 1100고지에서 특별한 역사의 한 장면이 열렸다. 바로 제2횡단도로(현재의 1100도로) 개통식이 그것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통의 길이 열리며, 제주도 발전의 전환점을 만든 순간이었다. 제2횡단도로는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한라산 서쪽 해발 1100m를 지나 서귀포시 중문동 일주도로까지 이어지는 총 37km의 구간으로, 당시에는 제주섬 서쪽을 처음으로 관통하는 도로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도로는 단순한 교통로의 개념을 넘어 관광 개발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끄는 핵심 축으로 설계되었다. 개통 당시 제주신문은 “관광 종합 개발을 촉진하고, 한라산 영실·야흔아홉골·어승생 등 경승지 개발과 2만ha의 유휴지 활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이 도로는 한라산 서쪽 지역의 원시림을 가로지르며, 당시에는 쉽게 닿을 수 없었던 비경을 연결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았다.

제2횡단도로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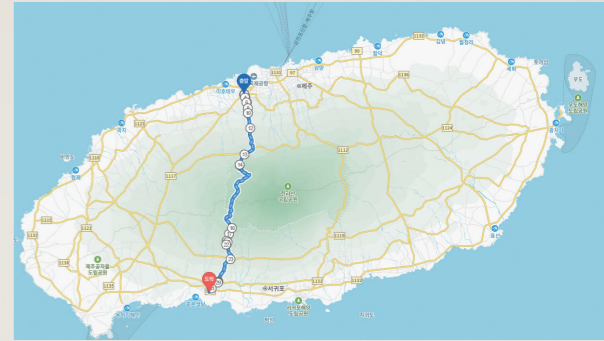
1100도로라고 불리는 제2횡단도로는 1968년 7월 착공해 5년 동안 2단계에 걸친 공사 끝에 완성되었다. 1차 공사는 1969년부터 1970년 4월까지 18km 구간이 우선 개설되었고, 2차 공사는 1973년 5월부터 12월까지 19km가 추가로 완성되었다. 특히, 공사 초기에는 1960년대 국도건설단이 투입되어 제주의 또 다른 대형 사업인 어승생담 공사를 마친 인력들이 제2횡단도로 개설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는 당시 제주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집중 투자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1100도로는 서귀포시에서 한라산 서쪽 산록 해발 1,100m를 정점으로 하여 제주시를 직접 연결하는데, 1969년 4월 30일 국도로 지정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방도 1139호선으로 변경되었다.

제주 서쪽 허리를 가로지르다

제2횡단도로는 한라산 동쪽의 기존 5·16도로와 함께 제주를 양분하던 한라산을 중심으로 교통과 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특히, 한라산 서쪽 허리를 가로지르며 처음으로 원시림을 개발해 새로운 지역 접근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도로의 완공으로 중문과 제주시를 잇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고, 중산간 지역의 발전과 관광객 유입을 가속화했다.

의미 없는 도로는 없다

오늘날 1100도로는 여전히 제주의 교통과 관광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한라산 서쪽의 원시림을 횡단하며, 한라산 영실과 어승생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의 다양한 생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1100도로는 계절마다 다른 경치를 제공한다. 겨울철에는 눈으로 덮인 한라산의 절경을 볼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다. 당시의 도로 개통 기념식 사진과 자료를 통해 제주 발전의 역사를 돌아보며, 도로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역사이고 자산인지 되새겨볼 때다. 제2횡단도로는 단순히 땅 위에 그어진 길이 아니라, 제주를 새롭게 연결한 역사의 도로이다. 🇵🇷



※ 출처 및 참고자료: ©국가기록원, ©제주관광공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주일보(2015.04.19., 한라산 서쪽 원시림에 제2횡단도로 포장 완료)